

공무원의 임용에서 퇴직까지의 과정을 인생에 비유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임용계획수립은 출산계획이고, 임명은 출생이며, 교육, 훈련은 학업과정이고, 승진은 인생에서의 상승적 전기(轉機)이며, 퇴임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사가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종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학력기재란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크지 않다. 다만 학벌위주사회풍토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보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실 공무원 임용시험은 객관식 시험 위주의 출제를 하고 컴퓨터로 채점한다. 객관식 시험을 시과정, 채점과정에서는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고시의 경우 2차 시험인 주관식 시험에서도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기 때문에 누가 응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시 3차 면접시험과정에서 서면 개인신상이 드러나는데 면접고사는 한 사람이 결정한다기 보다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의 여러 면접 과정이 있고, 질문도 수험생의 인격, 근무자세, 가치관, 도덕성의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 행정대학원장

공무원 사회의 '인사 바람'

따라서 공무원 응시원서의 학력기재란 철폐는 잘한 일이지만 그 효과가 대단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에 공무원 사회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과거의 평가 방식이 상당한 진화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승진·보수에 개인의 실적과 성과를 반영시키고 있다. 근무성적평가도 과거 상관의 일방적인 평가에서 탈퇴하여 다면평가제라 하여 동료, 부하 등의 평가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고시임용이라는 경직된 제도를 보완시키기 위해 개방형 직위제, 직위공모제 도입 등으로 내부승진만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을 흔들고 있다.

정부의 인사제도 개혁은 정부조직내의 행정문화를 변화시킨다. 정부의 행정문화는 민간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굳어진 학력 평가 인식을 시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학력철폐조치, 메리트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 등을

해도 역시 결과는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의 학력기재란을 철폐한 것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맹신주의를 시정하고자 하고 교육정책으로 인식하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의 능률성,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전정부적(全政府的) 인적자원·활용의 극대화이다. 부처간의 경계를 넘어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고위공무원의 이동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개방화시켜야 한다.

둘째, 직무특성이나 전문성을 기초로 한 인력관리를 해야 한다. 아마추어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프로에 의한 행정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대학시절 우수했던 사람이 공무원에 들어가 20년 이상 근무한 후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고자 경직되고 가치관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느 친구의 푸념을 귀담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 공무원 제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공무원도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도하는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행정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다.

불자의 눈

'새만금 간척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간척 사업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 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 놓은 것이다. 1991년 11월 착공 이래 14년 세월과 1조7483억원 이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얻은 결과로 개 '곰곰이 잘 따져보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바다에 버린 꼴이 됐다. 어처구니없을 만큼 허탈한 결과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국책 사업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들린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처음부터 '농지'라고 명시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용도 특성'이라며 불만을 드러낸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문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쌀이 남아돌아 현재 110만ha의 면적을 80만ha까지 줄여도 상관없고, 더군다나 국제 무역환경은 의무적으로 쌀 수입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식량안보' 운운하며 농지

새만금에 쏟아붓는 혈세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설득력은 커 보이지 않는다. 진정 식량안보가 걱정스러우면 농촌살리기와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절실한 '식량위기'가 어디 있는가.

다음으로 따져볼 문제는 국책사업으로서의 타당성 문제이다. 국책사업이란 무엇인가. 사업의 이익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될 때 비로소 '국책'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 '갯벌 보전'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갯벌 보전'과 '전북 경제 활성화'가 상충되지 않는,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농지보다 더 생산적인 용도'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단체의 '부분개발안'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그리고 문제는 남다. 혈세 낭비 문제다. 정부와 개발론자들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알만대'라는 논리를 펴지만, 본전이 아까워 수렁에 빠지고 마는 도박중독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을 아끼는 길은 현실에서 간척을 축소하고 갯벌을 살리는 길이다. 방조제 공사 외 내부 간척 공사까지 고려하면 공정 진행률은 5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화호'의 교훈은 한번으로 족하다. ■윤제환(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들었다 부실 도시락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부구경>

부실 도시락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해 부실 도시락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 담당자들은 보직해임이 되는가 하면 경찰들은 급식비 착복여부를 수사하고 있고, 보급망 마비로 도시락 대신 상품편을 지급한 곳이 나오는 등 연일 신문지상이 시끄럽다. 보건복지부는 부러부러 도시락 질을 높인다는 중언 2500원에 책정했던 도시락 가격을 40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은 "이제 와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다고 도시락 질이 개선되는가"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시락 파동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지는 취지에서 준비된 도시락에 '정성'이 없었다는 데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혜자'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탁상행정'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는 지적이다.

매주리얼 4개, 단무지 2쪽과 모닝빵 1개로 이루어진 점심 식사. 과연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작금의 상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현실이다. 우리 주변의 결식아동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도시락'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관심'이었을 것이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아끼듯, 내 이웃에게 자비심을 베풀었으면 결식아동들이 겨우 몇 쪽의 단무지로 배를 채우는 것을 좀 더 빨리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행정당국의 무책임함도 크지만 우리 모두의 무관심함도 못지않다. 마치 내 자식을 돌보듯 우리 이웃을 돌아보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을 실천하여 더 이상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거목 뒤 송이가 보이지 않음에

인도네시아 남 수마트라의 필레방이라는 곳에서 식물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해일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그곳에 가서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러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껏 많은 지원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공도, 봉사도, 지원도 그 곳 뉴스에 한번도 클로즈업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봉사하는 거목에 가려진 '송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지 주지사인 샤리엘 오스만씨에게 내 심정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돕는 점은 알리나 알리지 않으나 같으나 한국을 드러내는 그런 도움도 필요한 것 같다.

김영대(부다뉴스)

박경원씨 기사를 읽고

현대불교 508호 '사람에 보드된 박경원 거사님의 장인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누구나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다면 정상에 서게 된다. 나도 40년간을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다. 나름대로 성공도 했다. 이제 회향의 차원에서 포교사가 되어 열심히 포교 활동

을 하고 있다. 쇠와 마음은 풀이 아닌 나라는 법문은 훌륭한 법문이다.

김광식(부다뉴스)

주지 스님의 리더십

최근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동국대 대학원에서 나왔다. 주로 도심신용사찰에서의 조사가 바탕이지만 이 논문을 보면서 사찰은 기업이고 주지스님은 CEO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사찰CEO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불사일까? 이 논문의 내용에는 주지스님이 불사에 헌신하면 사찰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신도들의 질적 향상에는 무관하거나 부정적이라고 나왔다. 대중전·일주문 등 건 축물사를 거장하게 하는 것으로 주지스님의 사찰 운영 능력을 재는 신도들은 이제 없다.

주지스님의 법문이나 법력으로 사찰을 선택하는 신도들의 심리는 좀더 훌륭한 스승, 본보기가 되는 성직자의 모습을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비전제시, 역할모델링, 불사헌신, 설법교화력, 개인적 배려 등으로 주지스님의 카리스마적 행동법칙을 나누고 그 결과를 살피고 있는 이 논문은 주지스님이 사찰에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짚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기 된다.

노용진(충북 진천군)

조계종 신도증 이대로 안된다

조계종 신도증이 생긴다고 해 초창기에 스님의 권유로 신도증을 만들었다. 매년 교무금을 내야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도증을 만들었던 것조차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다.

가톨릭에서는 신도들이 이사를 갈 때 신도기록을 가지고 간다. 지역별로 정정이 되는 성당이 있고 기록을 그쪽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불교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계종 역시 전국에 교구별로 본사가 있고 그 본사 아래에 여러 말사들이 있는 구조이기에 충분히 가톨릭처럼 신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불자들은 전국의 종당은 절은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의 방식이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대안은 있지 않을까. 조계종에서 좀더 고민해서 신도증 및 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도증이 더 이상 애플단지로 서랍 안에서 굴러다니지 않고 그야말로 '불자'의 자존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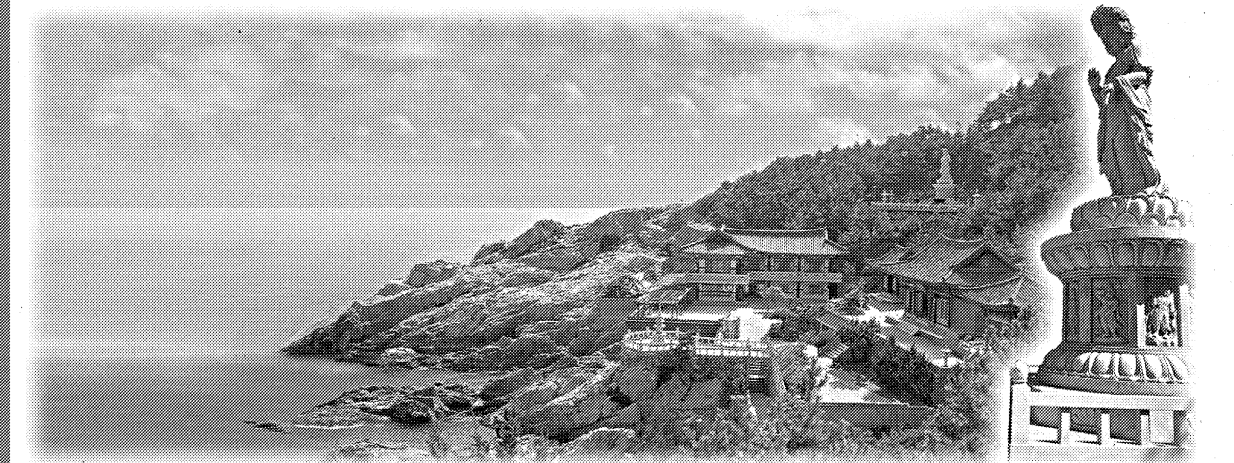
수행심(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연대' 민영 심민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주차장 완비, 입장료 무료, 점심공양 가능,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내용: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벽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 있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